

#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 성 주<sup>1)</sup> · 최 순 희<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으로 전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관심이 고조되었고, 최적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건강증진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세기에는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한 단위로 묶어놓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타국에서 거주하는 이민자와 유학생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으로의 이주는 환경의 변화, 가치관의 차이 및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개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Pollara & Meleis, 1995). 즉 이민자들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측면의 일차적인 건강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Juarbe, 1995), 대상자의 78.0%가 예방적 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보고(Choi, Lee, & Park, 2004)를 통해서 이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증진 행위의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동일지역 조선족이 한족보다 만성질환 유병율이 더 높았고(Ahn, 1998),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거주 일본인이 일본 거주 일본인보다 혈청 지질 값과 관상동맥질환 유병률이 더 높았으며(Benfante, 1992), 동일민족이 해외에 이주할 때 생기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유병상태가 달라졌다는 결과들(Takeya et al., 1984)에 비추어 볼 때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해외거주자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유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생활양식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대학생은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강하여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음주, 흡연, 불규칙한 식습관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며(Lee, 1997), 특히 유학생들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자칫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또래집단의 유혹으로 건강위해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건강문제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동안 이루어진 중국거주 한국인의 건강증진관련 연구는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의 생활양식특성 비교(Ahn, 1998) 외에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더욱이 미혼인 유학생들에게는 기혼자보다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요소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각종 건강위험요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통한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와의 관련요인의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상에 나타난 국내 청소년 및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Pender (1996)의 모형에 비추어서 선택한 건강상태지각(Park, 1994; Park, Joo, & Lee, 1997), 자기효능(Lee, 1997; Park et al., 1997), 자아존중감(Lee, 1997; Lee & Han, 1996; Park et al., 1997), 사회적 지지(Lee & Han, 1996)와 같은 변인들을 중심으로 중국거주 유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주요어 : 건강증진, 중국, 한국유학생

1) 광주 석산고등학교 교사

2)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choish@jnu.ac.kr)

투고일: 2006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2006년 7월 31일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 제 연구변인들과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국거주 한국인 유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대상자는 2001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국 북경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 남녀 유학생중 건강증진 행위를 실천하는데 지장을 주는 다른 질환이 없으며,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20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보조원이 한국유학생연합회와 종교단체, 가정 등에서 직접 면담을 통한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90부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30부를 제외한 160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 연구도구

#### ● 건강증진행위

Walker, Sechrist와 Pender(1987)가 개발한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 즉 자아실현(13문항), 건강책임(10문항), 운동 및 휴식(5문항), 영양(6문항), 대인관계 지지(7문항), 스트레스관리(7문항)영역으로 구성된 총 48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48~192점으로 점수가 많을수록 건강증진 행위의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3이었다.

#### ● 건강상태지각

Lowston, Moss, Fulcomer 와 Kleban(1982)이 개발한 4문항

의 건강상태 자가평가도구 중 '현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지각', '현재의 건강상태를 3년 전의 상태와 비교', '동일 연령층의 사람과 건강상태 비교'를 평가하는 3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5~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 지각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0이었다.

#### ● 자기효능

Sherer 등(1982)이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17문항의 도구를 번안하여 10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100~10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3이었다.

####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Suh(1989)가 번역·수정한 대인관계 지지의 지각척도인 총 18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18~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5이었다.

#### ●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인 10문항의 5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0이었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인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건강증진 행위의 관련요인은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각각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5세였으며, 20대가 68.1%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이 28.8%, 30세 이상이 3.1%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 각각 50.0%였고, 대상자의 50%가 대학생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교생(33.8%), 대학원생(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중국 내 평균 거주기간은 16.5개월이었고, 1년

미만이 31.9%, 1년~1년 6개월 미만 38.8%, 1년 6개월 이상 29.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상태 지각, 자기효능,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정도**

대상자들의 건강상태 지각은 최소 3점, 최대 15점으로 평균 9.7점이었으며, 자기효능은 최소 220점, 최대 940점으로 평균 655.1점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최소 10점, 최대 36점으로 평균 25.6점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최소 20점, 최대 72점으로 평균 51.2점이었다<Table 1>.

<Table 1> Mean score of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fficac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Variable(scale range)	Min.	Max.	M±S.D
Perceived health status(3-15)	3	15	9.7± 3.1
Self-efficacy(100-1000)	220	940	655.1±165.5
Self-esteem(0-40)	10	36	25.6± 3.1
Social support(18-72)	20	72	51.2± 11.8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최소 52점, 최대 179점으로 평균 112.2점이었고, 문항별 평균은 2.3점이었다. 영역별 건강증진행위의 문항별 평균은 자아실현영역이 2.9점으로 가

<Table 2> Performance level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

Dimension (scale range)	Min.	Max.	M±SD	M±SD of each item
Self-actualization (12-48)	12	48	34.5± 7.1	2.9±.6
Health responsibility (10-40)	10	40	17.2± 6.3	1.7±.6
Exercise (5-20)	5	19	10.3± 3.4	2.1±.7
Nutrition (7-28)	7	28	15.1± 4.6	2.2±.7
Interpersonal support (6-24)	6	24	15.4± 3.1	2.6±.5
Stress management (8-32)	11	30	19.7± 4.4	2.5±.5
Total (48-192)	52	179	112.2±20.3	2.3±.4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tudy variable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Variable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elf esteem
Dimension	r(p)	r(p)	r(p)	r(p)
Self-actualization	.24(.002)	.55(.0001)	.42(.0001)	.10(.194)
Health responsibility	.07(.374)	.12(.124 )	-.04(.542 )	-.11(.145)
Exercise	.01(.868)	.18(.022 )	.12(.117 )	-.10(.187)
Nutrition	.18(.020)	.26(.001 )	.15(.052 )	-.04(.550)
Interpersonal support	.01(.892)	.17(.030 )	.37(.0001)	.15(.058)
Stress management	.11(.157)	.32(.0001)	.25(.001 )	.12(.107)
Health promotion behavior	.17(.025)	.41(.0001)	.29(.0001)	.02(.780)

장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대인관계 지지(2.6), 스트레스관리(2.5), 영양(2.2), 운동 및 휴식(2.1), 건강책임(1.7)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

대상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3> Performance level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Item	M±SD	F or t	p
Age (year)	<20	108.8±20.4	1.15	.32
	20-29	113.3±20.4		
	≥30	119.8±14.7		
Gender	female	109.9±22.1	-1.43	.154
	male	114.5±18.2		
Education	high school	110.9±20.2	.18	.836
	college	112.8±20.7		
	college or higher	113.3±19.9		

**대상자의 건강상태 지각,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의 관계**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건강상태 지각(r=.17, p=.025)이나 사회적 지지(r=.29, p=.0001)와 낮은 순상관을 나타냈고, 자기효능(r=.41, p=.0001)과는 중정도의 순상관을 나타냈다<Table 4>.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가 있었던 건강상태지각,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를 다단계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한 예측변인은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자기효능이 17.0%(F=32.56, p=.0001), 사회적 지지가 2.2%(F=

4.11,  $p=.044$ )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이 두 변인에 의한 설명력 정도는 총 변량의 19.2%이었다<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Factor	R <sup>2</sup>	$\beta$	F	p
Self-Efficacy	.170	.04	32.56	.0001
Social Support	.192	.27	4.11	.044

## 논 의

중국거주 한국 유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문항별 평균 2.33점으로 뉴질랜드 이민 한국인의 2.16점(Lee, 1999)보다는 높은 편이나 필리핀 거주 한국인의 2.44점(Choi, 1999), 미국 이민 한국인의 2.43점(Park & Oh, 2001)과 비교하여 볼 때 다른 민족 이민자보다 한국 이민자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결과는 국내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인 Lee(1997)의 2.30점, Paek(2003)의 2.39점과 유사한 점수를 보였으나 Lee(1995)의 2.51점, Park 등(1997)의 2.61점, Park(1994)의 3.33점보다는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으므로 한국유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에 따른 장애요인의 파악과 건강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과 관리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역별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자아실현(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책임(1.7)이 가장 낮게 나타나 국내 대학생(Paek, 2003)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대인관계 영역이 가장 높았고 건강책임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결과들(Lee, 1995; Park, 1994)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국내·외 청소년과 대학생 모두 건강책임 영역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외거주 학생들의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대상자의 건강상태 지각은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와 낮은 순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멕시코계 미국여성(Duffy et al., 1996), 미국이민 한국인(Kim & Song, 1997)의 결과들과 일치하였으나, 건강상태 지각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던 국내 대학생(Park, 1994), 고등학생(Park et al., 1997), 성인초기(Chun & Kim, 1996), 필리핀 거주 한국인(Choi, 1999), 미국이민 한국인(Park & Oh, 2001)을 대상으로 한 결과들과는 불일치한 결과를 보여 건강증진 행위와 건강상태 지각의 관계는 대상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대상자의 건강상태 지각정도는 9.7점으로 필리핀 거주 한국인의 9.3점(Choi, 1999)과 유사하게 보통 정도로 나타났는데 본 대상 연령이 젊은 층이므로 멕시코계 젊은 미국인의 경우 건

강 자가평가나 신체적 증상 같은 건강변인들이 의사 방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또한 젊은층의 건강지각이 의료이용 횟수나 건강문제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Choi et al., 2004)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r=.29$ ,  $p=.0001$ )는 건강증진 행위 수행과 순상관이면서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결과(Lee & Han, 1996)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는 18세 이상 여성(Lee & Ban, 1999)과 필리핀 거주 한국인(Choi, 1999) 대상의 결과들과 일치하였으므로 사회적 지지는 이민자가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과 언어장애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재효과를 지닐 수 있으므로 교민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기단계의 이민 한국유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기효능은 건강증진 행위 수행과 순상관이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Park et al., 1997)과 대학생(Lee, 1997; Paek, 2003), 멕시코계 근로여성(Duffy et al., 1996), 필리핀 거주 한국인(Choi, 1999) 등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이처럼 모든 연령층에서 자기효능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건강증진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효능을 높여주는 중재가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건강증진 행위 수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던 고등학교 청소년(Park et al., 1997), 대학생(Lee & Han, 1996; Park et al., 1997) 대상의 결과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해외거주 유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새로운 환경속에서 건강증진 행위 수행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 행위 수행을 19.2%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연구들마다 각기 다른 변인들을 조사하여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와 동일한 변수인 대학생의 건강상태 지각 외 4변인이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28.19% 설명하였던 결과(Park, 1994)에 비하면 본 연구의 두변인의 설명력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본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 행위의 37.9%를 설명했던 결과(Lee & Han, 1996)나 자기효능, 자기존중감, 통제성, 과거운동경험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39.21%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Lee, 1997)에 비하면 낮은 경향이지만 이는 자아존중감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거주 한국 유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중국 북경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연구보조원이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현지에서 직접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제 변인과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의 관계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최소 52점, 최대 179점으로 평균 112.2점이었다. 영역별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의 문항별 평균은 자아실현 영역(2.9점)이 가장 높은 경향이었고, 건강책임영역(1.7점)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건강상태 지각( $r=.17, p=.025$ )이나 사회적 지지( $r=.29, p=.0001$ )와 낮은 순상관을, 자기효능( $r=.41, p=.0001$ )과는 중정도의 순상관을 나타냈다.
-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이 17.0%( $F=32.56, p=.0001$ )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2.2%( $F=4.11, p=.044$ )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이 두 변인은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 총 변량의 19.2%를 설명하였다.

상기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국거주 한국유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다른 지역 해외거주자들 뿐 만 아니라 국내 대학생들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고, 건강증진 행위의 예측요인은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운동 및 휴식 영역과 건강책임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이 낮아 저 연령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고조시키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유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킨 반복연구와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동일 연령층에 대한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Ahn, H. O. (1998). The association of perception of health

status with lifestyle of Yanbian Koreans and Yanbian Chinese. *Korean J Preventive Med*, 31(4), 828-843.

Benfante, R. (1992). Studies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cause-specific mortality trend in Japanese-American men living in Hawaii and risk factor comparison with other Japanese population in the Pacific region. *Human Biology*, 64(6), 791-805.

Choi, S. H. (1999).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s of Koreans in the Philippines. *J Korean Acad Funda Nurs*, 12(3), 369-381.

Choi, S. H., Lee, E. S., & Park, M. J. (2004). The perceived health status, physical health problem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Philippines. *Chonnam J of Nurs Sci*, 9(1), 67-78.

Chun, C. J., & Kim, Y. H. (1996). Correlational study of health promoting life styles, self esteem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adulthood. *J Korean Acad Funda Nurs*, 18(1), 41-53.

Duffy, M. E., Rossow, R., & Hernandez, M. (1996). Correlates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employed Mexican-American women. *Nurs Res*, 45(1), 18-24.

Juarbe, T. C. (1995). Access to health care for hispanic women : A primary health care perspective. *Nurs Outlook*, 43(1), 23-28.

Kim, M. J., & Song, H. J. (1997). Predictor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for the Korean immigrants in the U.S.A. *J Korean Acad Nurs*, 27(2), 341-352.

Lee, E. S. (1999). Health care status of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New Zealand. *J Korean Acad Nurs*, 29(1), 183-195.

Lee, I. S. (199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health locus of control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Community Health Nurs Acad Soc*, 9(1), 44-58.

Lee, J. K., & Han, A. K. (1996).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 Nurs*, 8(1), 55-68.

Lee, M. L. (1997).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7(1), 156-168.

Lee, W. J., & Ban, D. J. (1999). Health practic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2), 157-171.

Lowston, M. P., Moss, M., Fulcomer, M., & Kleban, M. H. (1982). A research and service oriented multilevel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Gerontology*, 37(1), 91-99.

Paek, K. S. (2003).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Community Nurs*, 14(2), 232-241.

Park, I. S., Joo, H. O., & Lee, H. J. (1997).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in health-promoting lifestyle of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3(2), 154-168.

Park, J. S., & Oh, Y. J. (2001).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 Korean immigrants in the U.S.A. *J Korean community nurs*, 12(2), 491-503.
- Park, M. Y. (1994).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in health promoting lifestyles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Community Nurs*, 5(1), 81-96.
- Pender, N. J. (1996).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3rd ed)*. Connecticut: Appleton-Century-Crofts.
- Pollara, M. H., & Meleis, A. I. (1995). The stress of immigration and the daily lived experiences of Jordanian immigrant women in the United States. *West J Nurs Res*, 17, 521-53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uh, M. J. (1989). *Th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state of adaptation of the hemipleg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Takeya, Y., Popper, J. S., Shimizu, Y., Kato, H., Rhoads, G. G., & Kagan, A. (1984). Epidemiologic studies of coronary heart disease and stroke in Japanese men living in Japan, Hawaii and California: Incidence of stroke in Japan and Hawaii. *Stroke*, 15(1), 15-23.
- Walker, S. N., Sechrist, K. R., & Pender, N. J. (1987). The health-promotion lifestyle profi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Nurs Res*, 36(2), 76-81.

##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Korean Students in China

Park, Sung Ju<sup>1)</sup> · Choi, Soon Hee<sup>2)</sup>

1) Instructor, Gwangju Suksan High School

2)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level of performance and predi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Korean students in China.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60 Korean students who have lived in Beijing, China. Data were collected by self reporting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01 and t-test, ANOVA,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scor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r=.17$ ,  $p=.025$ ), social support( $r=.29$ ,  $p=.0001$ ), and self-efficacy( $r=.41$ ,  $p=.0001$ ). By use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determined that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were self-efficacy 17.0%( $F=32.56$ ,  $p=.0001$ ) and social support 2.2%( $F=4.11$ ,  $p=.044$ ). These variables explained 19.2% of the variance i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scores. **Conclusio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were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se findings showed that we need to develop nursing strategies to promot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for Korean students in China.

Key words : Health promotion, China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Soon-H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5 Hak Dong, Dong-gu, Gwangju 501-190, Korea

Tel: 82-62-220-4345 Fax: 82-62-227-4009 E-mail: choish@jmu.ac.kr